

월요논단



김영호
중앙대 명예교수·미술사학 박사

제주 미술의 시대적 과제

2026년 봄, 제주 미술계는 '제주 4·3의 예술적 승화'와 '제주비엔날레를 통한 세계화' 그리고 '원도심 재생과 예술'이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왕성히 개화하고 있다. 제5회 제주비엔날레의 개막 준비와 함께 4·3 미술제의 실험적 시도들이 맞물리며, 제주 미술은 섬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세계적 보편성을 향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제주 미술이 마주한 세 가지 핵심 현안을 직시해야 한다.

의 아카이브 및 세계화다. 그동안 4·3 미술은 비극적 역사를 증언하고 기억을 복원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제 증언과 기록의 단계를 넘어, 4·3이 내포한 '저항과 평화'라는 가치를 보편적 예술 언어로 승화시켜야 할 때다.

2026년 4·3 미술제가 내건 '파(波)의 집결'은 제주의 아픔을 동시대 인류가 직면한 전쟁, 난민, 기후 위기와 연결하는 확장적 시각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4·3 미술의 서사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브화 하고 이를 국제적 전시기획과 결합할 때 제주 미술은 세계인이 공감하는 '치유와 연대의 미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둘째로, 제주비엔날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성찰이 시급하다. 어 느덧 5회를 맞이한 제주비엔날레가

제주 문화적 지형을 바꾸는 상실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비엔날레를 통해 축적된 네트워크와 담론이 지역 작가들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비엔날레의 결과물이 지역 미술계의 자산으로 남고, 국내외 큐레이터들이 제주 미술의 역동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궁극적으로 비엔날레를 위한 전담 조직 구축이 비엔날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임을 인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원도심 재생과 예술의 상호작용이다. '예술공간 이아'나 '산지천 갤러리' 등 원도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전시들은 이미 제주 지역 공동체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이제 공간의

물리적 재생보다 '관계의 재생'이라는 측면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 예술이 지역 주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새로운 공동체의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 조직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예술가들이 원도심의 골목에서 영감을 얻고, 주민들이 그 예술적 실천에 참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재생 사업이 될 때 예술은 도시 재생의 적절한 도구가 될 것이다.

제주미술의 지속가능을 위한 핵심 컨셉은 '제주 미술의 자생력'이다. 4·3의 정신을 보편화하고, 비엔날레를 전담 조직으로 플랫폼화하며, 원도심을 예술로 살려내는 일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2026년 봄,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 예술 축이 제주 미술을 성장시키는 힘 있는 파동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사설

깃발만 꽂으면 당선... 이대로 좋은가

제주 정치 지형의 한쪽 줄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며 제주 역시 민주당의 깃발만으로 당락이 갈리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이는 호남과 대구·경북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편중 현상과 유사한 흐름이다. 호남에서는 보수 정치인이, 대구·경북에서는 진보 정치인이 당선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돼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수년간 보수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부 제주도의원 선거구에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보수와 진보 간 경쟁이 사실상 실종된 정치 지형에서는 국민의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부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가 본선 결과로 직결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전략공천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앙당이 김 전 차관을 전략공천한 것은 민주당의 우세가 공고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민주당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쟁이 사라진 정치 지형에서는 정책 검증과 인물 평가 역시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그 책임은 도민에게 돌아간다. 지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의 복원이 필요하다. 정당도 도민이 원하는 후보를 내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며, 유권자 역시 특정 정당에 대한 관성적 지지를 넘어 보다 엄정한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해야 한다. 도민보다 정당의 선택이 우선되는 정치 환경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열린마당

제주 해안 경계, 뚫린 것이 아니라 '환경의 차이'



김항수
제주해안경비단 경감

최근 제주 밀입국 사건을 두고 "해안 경계망이 뚫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전방 해안에서 근무해 본 이들이라면 제주와 전방의 경계 환경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안다. 필자는 해병 초병으로서 서부전선 해안경계를 경험했다.

전방 해안(김포·강화 등)은 철책과 열상감시장비, 촘촘한 초소 배치로 침투 자체를 차단하는 '폐쇄형 경계'다. 반면 제주는 해안선이 약 250km에 달하는 개방된 생활공간이다. 관광객, 어민, 레저 활동이 뒤섞

인 환경에서 전 구간 통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주는 '막는 경계'가 아니라 '가려내는 경계'다. 특히 소형 고무보트는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고 파도 잡음에 쉽게 묻혀 탐지가 어렵다. 야간의 저고도 이동까지 더해지면 어떤 해안이라도 100% 차단은 불가능하다. 이를 단순한 경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기술적 한계를 간과한 평가다.

오히려 주목할 점은 결국 검거됐다는 사실이다. 112 신고와 수사망이 작동하며 침투 이후까지 대응이 이뤄졌다. 이는 제주 경계가 '사후 검거까지 포함한 통합 방위 체계'임을 보여준다.

이제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대안이다. AI 기반 이상 항적 탐지, 드론 순찰, 소형 표적 대응 기술 등이 그 해법이다.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왜 못 막았는가 아니라, 어떻게 더 정밀하게 가려낼 것인가.

뉴스-in

제주-산동성, 청다오 항로 기반 협력 확대

삼다수 통관 절차 처리 요청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달 30일 도청 집무실에서 왕레이 중국 산동성 상무청장을 비롯한 방문단과 면담을 갖고 양 지역 간 수출입 확대, 청다오 항로 물동량 증대, 그린수소 등 친환경 산업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

이날 면담에서 오 지사는 5월부터 중국 수출을 본격 개시하는 제주 삼다수의 통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왕레이 청장은 청다오-제주 컨테이너 항로의 최적화와 물류 솔루션 확대, 수소 산업 등 친환경·저탄소 분야 공동 협력, 산동성 수입상품 박람회 등을 활용한 제주 우수 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등 세 가지 협력 방안을 제안.

오 지사는 "산동성과 제주의 교류 협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

"고유가 지원금 신속 지급"

○...김완근 제주시장이 최근 시장정책 공유 간담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지급, 5월 주요 현안 대응과 관련해 전 부서의 협업·배려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대응을 주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한 대상부터 차질 없이 지급돼야 한다"며 "정책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접수창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대기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

김 시장은 "이밖에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 종합감사 수감 등 급박한 현안이 집중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 전체 부서 간 협업과 상호 배려에 더욱 힘써 달라"고 강조.

반복되는 항공기 좌석난 근본대책 마련을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항공유 가격 급등이 적잖은 불편을 주고 있다. 항공사들이 운항을 축소하면서 좌석난으로 항공권 구매가 전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좌석난은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서 비롯됐다. 하계 운항기간 제주-김포노선의 13개 슬롯이 증소행기를 운항하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배분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 국내선 하루 공급 좌석은 지난해 보다 1009석이 줄어들었다. 원천 데 덮친 격으로 LCC의 비운항까지 더해지면서 좌석난은 가중되고 있다. 4·5월 LCC가 비운항하는 제주 노선은 제주~김포 등 8개 노선, 총 616편이다. LCC가 주로 운항하는 항공기종인 180석 기준 두 달 동안 11만석이 감소한 것이다. 공급 좌석이 줄어든 여건에서 수확여행단 등 단체 관광객과 연휴를 맞아

제주관광 개별 여행객이 몰리면 좌석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입구나 원정 진료를 위해 서울 등을 왕래해야 하는 도민들도 항공권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좌석난 심화로 올해 첫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5월1일 노동절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기간 제주관광은 특수운항하는 저비용항공사를 누리지 못할 전망이다. 특수에도 좌석 부족으로 내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다.

항공은 물 나들이를 해야 하는 도민이나 제주 여행객들에게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성수기만 되면 좌석난이 되풀이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대형항공사는 제주노선에 임시편을 투입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고질적인 좌석난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이상현(1987. 02. 02.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연서3길 2, 404호 (오라이동, 세일파크빌)

상속자는 2025년 8월 30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4월 28일 제주지방법원 2025노단576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연서3길 2, 404호 (오라이동, 세일파크빌)

2026. 5. 4.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희경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 묘지관리·묘지보수
- 방묘·산담·잔디작업
-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법인은 2026. 3. 4. 회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6. 3. 9.자로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본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공고제출일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을 본법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6. 5. 4.

사단법인 제주복지사업연구소

제주시 연미3길 30(오라이동)

청산인 김성권

작명★택일★사주★운세 상담

- 운명과 삶의 흐름을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사주와 맞는 좋은 이름을 작명해 드립니다.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은퇴 없는 평생직장 역학상담사

1. 역학상담사 자격증반
2. 철학원 창업반(통변증식)

※ 개인교습으로 수시모집

☎ 연락처 **동방철학원 (064)759-4585**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도지부장 문학림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릉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